

KINU Insight

2018
No.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민
박영자
오경섭
홍제환

KINU Insight 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북한연구실장

박영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오경섭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제한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1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5
1. 정치	5
2. 경제	8
3. 사회·문화	11
4. 대남	13
5. 대외	16
III. 향후 전망 및 정책적 함의	18
1. 전략적 의도와 향후 전망	18
2. 정책적 대응방향	24
부록. 2018년 북한 신년사 원문	27

차 례

표 차례

〈표 1-1〉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 제시 구호	3
-----------------------------------	---

I 전반적 특징과 정책방향

-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를 활용한 국면전환과 정세관리 모색
 - 북한정권 수립 70돌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로 표현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제기
 - 남측의 화해·협력 메시지에 화답하듯 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②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실현, ③ 남북관계 개선 위한 논의 등을 제시, 적극적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시사
 - 한편 한미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다방면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철회 등을 제기, 이후 대화 과정에서 ‘5.24 조치’ 및 대북제재에 대해 문제제기 가능성 시사

- 공세적인 핵·미사일 고도화 언급 자제 속 억제력 및 실전화 중심의 군사 활동 시사
 - 추가적 도발·고도화보다는 ‘전쟁억제력’이라는 방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언급, 전략도발은 당분간 자제 가능성
 - 미국 본토 전역의 ‘핵타격 사정권’과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언급, 미국과 대등한 ‘균형’을 갖춰 ‘전략국가’가 되었다는 것과 향후 ‘핵군축’을 주장하기 위한 수사
 - 다만, 핵·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사업과 ‘핵반격작전 태세(2차 공격능력)’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실전화와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ed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진입탄도미사일), 지대함·대공미사일 등의 한·미 전략자산의 틈새를 노리는 무기 시험 가능성

- 전략도발보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피하면서 실전화와 은밀성을 효과적으로 과시하는 차원의 군사적 활동 예상

□ 대북제재 자원 제약 속에서 자구적인 정권 70주년 경제성과 내기 주력 예상

- ‘핵무력 완성 대업’을 모든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혁명적 총공세’ 강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통한 경제 활성화 촉구
- 제재·압박에 대응한 장기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정권 70주년에 맞춘 경제성과 내기에 초점
- 대규모 건설보다는 대형 공장·기업소나 산업 부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자원절약, 국산화 등을 강조하는 경제전략 구사 예상

□ 대북제재 대응한 장기전 체제와 주민 결속 차원의 ‘혁명적 총공세’를 전투적 구호로 제시

- 올해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를 혁명적 구호로 채택
-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를 통해 제시했던 ‘전투적 구호’나 ‘대남 구호’ 명칭 없이 ‘혁명적 구호’란 이름으로 제시
- 표면적으로는 핵무력 완성의 성과를 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방어적 성격의 구호 제시

〈표 I-1〉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 제시 구호

연도	전투적 구호	대남 구호
2012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2013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20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자!	-
2015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2016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
2017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
2018	(혁명적 구호)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 비사회주의의 현상 근절 명분, 내부적인 인적 쇄신과 정풍운동 가능성

- 당의 조직사상적 단결과 ‘혁명적 당풍’의 철저한 확립을 강조
- 제7차 당대회(2016), 제7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7), 당세포위원장 대회(2017) 등을 통해 당 중심의 권력체계를 정비한 것의 후속 작업으로 당조직 및 국가기구, 군대 등에 대한 조직정비 및 규율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시사
- 2017년 제7기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당내 규율과 사상투쟁 강화를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혁명적 당풍

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

- 특히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잡사상과 이중규율”, “당 세도와 관료주의” 근절을 강조, 대북제재 장기화에 동요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풍운동’ 가능성
- 정풍운동은 비사회주의 현상 및 남한 사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과도 연계할 가능성

□ 총괄 평가

- ‘국가핵무력 완성’을 명분 삼아 남북관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로 국면전환과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
- 미국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여 대북정책의 변화를 관망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남북 관계를 국면전환의 교두보로 삼을 것임을 시사
- 정권 창건 70주년과 평창올림픽을 ‘민족적 대사’로 표현하며, 이를 계기로 한 국면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II 부문별 내용과 특징

1. 정치

가. 2017년 평가

- 2017년은 대북제재 고조 상황에서 당의 지도력 성과 및 김정은 절대권력 강화했다고 평가
 -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고 당주도 정책지도 성과 자평
 -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있다며 김정은 절대권력 과시
-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성취로 평화체제 환경 조성했다고 과시성 평가
 -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기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 북핵은 국가 자주권 확보 위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지 공격용이 아님을 강조
- 2017년 당의 병진노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 및 생활력이 입증되었다고 자평
 -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난관 속에서 ‘당의 병진노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되었다고 주장
 - 김정은과 당의 지도를 따르고 지지해 준 국방과학자와 군수공업 종사자 치하

나. 2018년 과업과 정책·사업 특징

- 2018년 북한의 총과업(혁명적 구호)으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제시
 - “전인민적 총공세”로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세워야” 한다며, 연초부터 국가 창건 70돌(9.9) 계기 성과도출을 위해 당주도 대중조직 사업 전면화할 전망
 - ‘국가핵무력 건설’ 선언에 기초하여 조직관리 및 경제적 성과도출 사업을 강화할 전망

- 2018년 총과업 관철 위해 모든 사업에서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 역할 강화 과업 제시
 -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과업 제시
 - 2017년 10월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및 12월 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결정인 ‘당주도 국가발전전략 사업 지도’ 관철의 후속사업 전망

- 당의 말단 단위인 당세포로부터 규율과 사상투쟁 강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국가기구군대·사회단체의 지역 및 하부단위 조직 정비하며 인적 쇄신할 전망
 -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율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과업 제시로 조직통제 사업 강화 암시

- “전당적으로 당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 빼는데 모를 박고 혁명적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 과업 제시로, 지역 및 하부단위 조직 정비와 인적 쇄신을 전개할 전망

□ 북한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립 70돌(2.8) 계기로 선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 군의 위상’을 재설정하며 당의 지도가 관철되는 “혁명적 당군” 구축

- 군대에서는 창립 70돌 계기로 인민군 실전 대비 전투훈련 강화 과업
- 사회에서는 예비군력인 노농적위군 및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정치훈련 강화하여 사회 감시와 통제 강화 과업

□ 당주도 대중조직 활동 강화 사업과 함께 대북제재 강화로 동요할 수 있는 민심의 향방을 대적(對敵)의식 강화로 전환시키는 사업

- 당주도 근로단체가 앞장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강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 창조대전’ 주도 과업 제시
- 체육활동 및 북한식 예술사업 강화하여 대중들의 ‘불안과 동요가 대적(對敵)에너지로 전환’되게 유도할 전망

□ 대중정치 차원에서 ‘비사회주의 현상’ 근절 위한 통제·규율 강화 및 보위성·보안성·검찰기관들의 활동 강화

- 기층 당세포 단위로부터 각 단위의 생활총화 강화하여 ‘비사회주

의적 현상'과의 투쟁 및 억압정책 고도화 전망

- 근로단체 및 보위·보안조직들 내 당조직들이 주도하여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시복종 준수 사업 및 일심단결 강화 과업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주도 근로단체 및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의 활동 강화 전망

2. 경제

-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었다고 자평
 - 아울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다고 언급
- 산업 부문별로는 자력갱생을 위한 노력 및 그에 따른 성과 강조
 -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경공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등 자력갱생을 위한 노력 강조
 - 구체적인 성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우리식 산소열법 용광로, 새형의 트랙도르(트랙터)와 화물자동차 생산목표 달성, 여명거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산림복구전투 1단계의 과업 수행 등 제시
 -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 예년에 보기 드문 과일 풍작”을 거두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사 작황은 평년 수준 혹은 그 이하일 듯

- 예년과 달리 제재와 관련해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8년도 경제 분야 과업으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제시
 -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를 내세운 것은 대북제재 하에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올해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은 창건 70돌을 맞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주민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산업 부문별 과업 내용을 보면, 전력공업 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전력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
 - 전력생산 증대와 함께 전력 손실 및 낭비를 줄이는 등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함도 강조
 - 전력 사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전력 문제가 경제 부문 성과를 높이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금속·화학·기계공업 부문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과업에서는 자립성과 주체성 강조
 - 금속공업 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완성하고 철강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앞서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할 것을 지시
 -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인비료공장 건설 등을, 기계공업 부문에서는 “기계제품들을 우리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함을 강조

- 경공업 분야에서는 인민생활 향상 측면 강조
 - 설비 및 생산공정을 “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것을 강조
 - 경제 분야 과업으로 인민생활의 개선,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북한 당국이 경공업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

- 건설 부문 과업으로는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 등 거론
 - 창건 70돌을 맞아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2016년과 같이 노력 동원을 늘려 신년사에서 소개되지 않은 건설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존재
 -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를 전개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어 노력 동원을 강화할 가능성 존재

- 개혁·개방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경제 측면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지방경제의 자립성에 대해서도 강조
 - 전력생산과 관련해서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 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지방공업 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할 것을 요구
 - 경공업 부문 과업과 관련해서도 “도·시·군들에서 자체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 이러한 지방경제의 자립성에 대한 강조는 지방경제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방이 자력갱생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

3. 사회·문화

- 2017년도 평가 관련 교육·의료 및 예술·체육 부문 등에 대해 짧게 언급
 - 전년도 성과와 관련 ‘사회주의 교육체계’의 완비와 교육환경 일신, ‘의료봉사조건 개선’, ‘예술공연 활동 본보기 창조’, ‘국제경기 우승 쟁취’ 등을 짧게 언급
 - 2017년에 이어 사회·문화 부문 언급이 생략되거나 극히 짧게 언급되는 것은 대북제재 및 중요 정치행사 등 정치상황이 악화되면서 성과 제시가 어려운 부분 반영

- 2018년 과제로 사회주의 문화 전면적 발전 제시
 - 올해 과제로 ‘교원진영 강화’, ‘교수내용과 방법 혁신’, ‘의료봉사 사업에서 인민성 구현’, ‘우리 설비와 기구,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 증대’ 제시
 - 2016년 및 2017년에 이어 주로 교육과 의료봉사 등에 국한하여 주민 복지 및 생활 전반에 대한 과제 제시 미흡

- ‘대중체육’ 및 ‘부르주아 반동문화’ 막는 문학예술 역할 강조
 - 김정은 집권 이후 문학예술 부문의 외부사조를 막는 문화적 기능을 강조, 올해도 연속선상에서 문학예술 역할 강조
 - 주민들 사이에 확산된 외부사조에 대한 체제 내부의 방어기제가 뚜렷하게 없어 ‘문학예술’을 통한 혁명성 강조
 -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주의문명화’의 일환으로 ‘대중체육활동’을 강조, 지방 도시 곳곳에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
 - 젊은 지도자의 역동성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로 체육 분야 성과를 강조

-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대대적인 투쟁 시사
 - 올해 신년사에서는 당 운영 부문과 별도로 사회 부문 언급에서 “전사회적 도덕기강” 확립, “온갖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을 강조
 - 당조직 이외에 전 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를 명분으로 한 사회정화 차원의 단속·처벌·규율화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

4. 대남

□ 조국통일 추진에 엄중한 난관과 장애 조성

- 신년사에서 2017년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한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악랄한 제재·압박과 전쟁도발 책동을 감행했다고 진단
- 올해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미국의 대북제재·압박과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는 입장 표명
- 올해 중요 과제는 핵개발을 완성하는 동안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

□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 남한에서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남한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했다고 비판
- 북한은 남북관계 동결 책임을 한국정부에게 떠넘기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 표출

□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책 수립

- 정권 수립 70돌 기념행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
- 2018년에는 북한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전환을 시도해서 대북제재·압박을 약화시키려는 전략 실행
- 북한은 대북제재·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

□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적 환경 마련

-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 합동군사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라고 요구
- 올해 핵무기 실전배치·대량생산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대화·평화 공세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전술적으로 활용
-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군사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화는 거부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민족 화해와 통일 지향 분위기 조성

-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라고 주장
-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민족자주의 가치를 들고 남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해결함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 격파하자고 호소
- 북한이 대남 대화평화공세를 통해 핵 폐기 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남남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 제안

-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이므로 대회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는 입장
- 북한 대표단 파견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대화 필요하다고 제안
-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위급대화와 군사당국회담 추진

□ 남북대화과 관계 개선 전망

- 남북한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면 북핵문제라는 중대한 장애물을 넘어야하는 상황
-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핵 묵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북핵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남북한 간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화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
- 남북대화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체제 안전보장, 평화

체제 구축, 북한 발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

5. 대외

□ 2017년 대외 부문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으로 평가

-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있었다고 평가
-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
- 전체적으로 대외 부문의 평가 부분은 짧게 환경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고 대부분 ‘국가핵무력 완성’이 갖는 전쟁억제력 강조에 방점

□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례적으로 짧은 대외 부문 관련 언급

- 예년과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고 앞서 대남 부문에서의 ‘평화공세’에 맞춰 대외 부문도 평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초점
-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노력” 등의 수사를 동원, 자신들의 핵무기가 평화적 수단임을 강조

□ 모호한 ‘선제 핵 불공격(No first use)’ 교리 언급

-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도 지역도 핵

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적대국가의 군사적 공격에 대응한 핵무기 사용이 아니라 ‘자주권과 이익의 침해’ 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핵무기 사용 정황을 정의
-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밝힌 핵교리에 비해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어 향후 북한 핵교리 변화에 주목이 필요

III 향후 전망 및 정책적 함의

1. 전략적 의도와 향후 전망

가. 북한의 전략적 의도

- 올해 신년사는 북미관계의 대결 국면을 우회하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평화’ 공세 차원으로 해석 가능
- 2017년 말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관련국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극적인 국면전환 시도
 -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한·미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나 도발 중단을 한편으로 기대한 측면
 - 이런 기대를 활용, 신년사를 통해 이를 충족시켜 주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북제재·압박의 국면을 극적으로 전환하고 정세를 주도하는 효과를 내고자 했을 가능성
 - 특히 국면전환 명분으로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앞세움으로써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이라는 프레임 전달 의도
- ‘평창 모멘텀’을 통한 ‘시간벌기’ 및 북미대화 모색
 - 2018년 상반기 올림픽 참가와 성공적 개최를 명분으로 도발을 자제하면서 북미대화의 조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후 중·하반기 북미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

- ‘평화협정-핵군축’ 로드맵으로 가기 위한 남북관계 활용
 - 남북대화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핵군축’ 로드맵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일 가능성
 - 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핵전쟁연습’의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핵전쟁연습’은 곧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의미
 -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자신의 핵보유를 동일한 것으로 올려 놓고 이 둘을 줄이기 위한 ‘핵군축’을 제기하려는 포석으로 해석 가능
 - 핵무력 완성 이후의 신년사를 통해 ‘전략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또는 포석으로도 해석 가능

- 대북제재·압박 국면을 약화시키는 대외관계 행보 가능성
 -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관계 개선 성과를 발판 삼아 대북압박·제재 국면을 우회적으로 약화시키는 대외관계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경색된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중국의 양회 이후 ‘당 대 당’ 외교 복원 시도 가능성

- 결론적으로 2018년 신년사는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일정 수준 보이면서도 일련의 유화적 행보를 강조함으로써 대북제재·압박 국면을 관리하는데 전술적 목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 가능

나. 향후 전망

1) 대남 정책과 남북관계

- 북한은 신년사 이후 평창올림픽 전후 남북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적극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
 - 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 고위급회담 및 올림픽 기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실무적 안전보장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
 - 올림픽 이후에는 남북관계 전반의 의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 및 군사회담에 응해 남북대화가 일정한 속도를 낼 가능성

- 평창올림픽 직후 3월 말부터 5월까지 한미 연합훈련 연기·축소·중단을 놓고 남북 및 미국 사이의 갈등 가능성
 - ‘평창 모멘텀’으로 일정 기간 유화 및 대화국면이 유지되겠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공세 여부에 남북관계 상황은 매우 가변적
 - 한·미 당국의 2018년 키리졸브(Key Resolve: KR) 및 독수리(Foal Eagle: FE) 훈련 연기 방침에 북한은 기존 ‘중단’ 주장을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의 중단이나 2019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
 -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자신들이 기여한 것을 명분 삼아 9월 9일 정권 수립 70돌에 앞서 진행되는 UFG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

-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대화의 북미대화로의 연결 가능성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
 - 첫째,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핵문제 의제화를 거부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우선적 철회를 주장하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연결을 차단하려고 할 가능성
 - 다만, 평창올림픽 이후 일정 기간 북한이 핵·미사일 관련 위협적 활동을 중단할 경우, 북미 당국 사이의 접촉과 대화가 남북대화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
 - 둘째,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제안과 견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4자 또는 6자의 대화들에 북한이 응해 초보적이지만 북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의 논의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

- 한·미를 자극하는 전략도발보다는 한·미의 전략자산과 확장억제력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핵·미사일의 실전화를 보여주는 수준에서 군사적 활동 가능성
 -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은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제를 하고 대신 SLBM, MIRV, 지대함·대공미사일 등 한·미 전략자산의 틈새를 노리는 무기의 시험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
 - 핵·미사일의 대량생산이나 실전화 과시 위해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 및 미사일 운용교리를 보여주는 훈련 공개 가능성

- 정권 수립 70주년에 한국의 축하단 또는 고위급 인사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
 -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 예술단, 기자단, 응원단 등을 파견한 것을 명분으로 이에 상응하는 답례 차원의 고위 인사나 축하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
 -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동일선상에서 '민족적 대사'로 표현한 만큼 축하단 파견 요구를 통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

- 남북관계 개선 및 경제성과를 정권 수립 70주년의 성과로 제시할 가능성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선전하기 위해 올해 9월 9일까지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이정표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
 - 경제성과로는 대형 공장·기업소 개건·신축 등을 통해 상징적인 차원에서 선전할 가능성

- 남북대화 및 접촉이 일정 수준 빈번해지고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만큼 주민들에 대한 사상학습, 단속·처벌, 규율 강조
 - 시장의 확대, 대북제재의 지속, 국가의 시장 의존도 증대 등에 따라 외부사조의 유입 및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지도부의 우려 증가
 - '당풍 강화'와 '비사회주의 현상' 근절을 명분으로 한 당조직 및 사회의 중하층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쇄신 운동 가능성

2) 북한 내부 정세

- 2017년까지 중앙 당조직 정비에 주력했다면 2018년은 중앙 당조직 정비 결과에 기초하여 후속사업 과정에서 각 기구 체제 정비할 전망
 - 2016~2017년 기간 진행한 중앙 당조직 중심 체제정비를 일단락 짓고, 2018년은 기층 당조직·국가기구·군대·사회단체 정비 가능성
 - 기층 당조직 사업 강화하며 지역 당간부 및 조직 정비를 단행할 전망
 - 통상적으로 매년 4월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 시 국가기구 조직 정비 양상이 드러날 전망
 - 정규군인 조선인민군 창립일인 1948년 2월 8일을 공식화하면서 이 시기 전후로 군대 내 조직을 정비할 가능성
 - 대중동원 사업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단체 조직 정비·보강할 전망

- 당주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성과도출 과업에서 '당의 경제행정 대 행 문제' 심화 가능성
 - 2017년 12월 19~26일 진행된 제5차 당세포위원회 회의와 사업 과정에서 제시된, 당세포의 핵심 과업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성과도출 과정에서 대행문제 심화 전망
 - 2017년 12월 28~29일 진행된 북한의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군 연석회의 시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사업총화 결과에 기초한, 2018년 3년차 성과도출 본격화 과정에서 경제문제를 정치·사상문제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갈등 및 부작용 심화 가능
 - 2016년 제7차 당대회 및 2017년 10월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인 ‘당정책관철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층단위로부터 ‘당의 경제행정 대행 문제’ 고조될 가능성

- 지역 도시 중심 자력갱생 강화 및 생존체계 구축 과정에서 지역 균열과 갈등 심화 가능성
 - 대북제재로 전력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각 도단위 중심으로 자체 전력 보장과 경제자립체계 구축 지시
 - 당주도 자력갱생 사업 중심인 도시당위원회의 업무하중 및 지역 상황에 따른 격차 심화되고 중앙-지역 간 갈등 심화될 가능성

2. 정책적 대응방향

-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 전략을 구분하여 예상 시나리오와 정세 대응안 마련 필요
 - ‘평창’ 이전 전략으로 북한과 예상되는 남북대화의 운용 및 관리에 초점, ‘평창’ 이후 전략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미리 유형화하여 준비 필요
 - ‘평창’ 모멘텀을 살려 도발 중단 및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아이টে姆으로 ‘평화 구상’과 북한 예상 반응을 세부적으로 준비할 필요
 -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남북한 포함 주변국 2018년 주요 정치·외교·군사 일정 세부적으로 체크 필요
- 북한의 ‘평화공세’ 속 대화의제 분리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의제와 미국과의 대화의제를 분리, 한·미의

혼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

- 핵·평화협정 문제 → 북미 ‘핵군축’ 협상을 통한 접근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평화적 환경 조성 → 남북한 ‘군비통제’ 관련 군사회담을 통한 접근
-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도와 의제 분리전략은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어 한·미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

□ ‘평창’ 전후 남북대화 시 북한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필요

- 북한은 당국자 회담 및 군사회담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조건으로 언급할 가능성
- ① 대북제재·압박 해제, ② 한미 연합훈련 중단, ③ ‘5.24 조치’ 해제, ④ 개성공단 가동 재개, ⑤ 경제지원 등
- 이외에 SLBM·MIRV·전술미사일 도발 시 대응 강구도 필요
- 위의 내용들이 평창 전후로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과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

□ 비핵화·평화협정·군비통제를 포괄하는 ‘평화로드맵’ 준비 및 가동 필요

- 미국의 ‘선(先) 비핵화’와 북한의 ‘선(先)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및 평화협정 체결’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평화구상 구체화 필요
- 평화로드맵에 따라 우선 미국의 설득·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행보가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

- 북한에게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취지를 전달하고 비핵화 결단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보장을 제시하여 비핵화 회담으로 견인할 필요
 - 이런 미국과 북한에 대한 설득전략이 일정하게 관찰된다면 4자 또는 6자 구도의 한반도 ‘평화선언’ 추진을 고려할 필요
- 대북제재 고도화 상황에서 북한 내부 균열의 복잡성이 초래할 북한변화 촉진 및 대북 정보력 증대 필요
- 김정은의 정세 관리에 대한 불안감, 당 및 국가 조직 정비의 안정성, 권력기관들의 자원 재분배 및 통치자금 상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등에 대한 정보력 증대 및 분석 필요
 - ‘비사회주의’ 근절 투쟁, 정권 수립 70주년 생산성과에 대한 당의 과도한 개입과 행정 대행 현상, 지역갈등 심화 등과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균열에 주목하여 시장화 및 정보화 정책 구체화 필요
 - 권력정치 차원에서는 김정은의 불안과 조바심·조직 정비·권력기관들의 국가자원 활용과 통치자금 마련 과정에서 정권엘리트 내부 우발적 사건 발생 가능
 - 이러한 정치균열 시나리오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에 착목하여, 대북 정보력 증대와 함께 북한 권력정치 변화의 ‘정치적 기회구조 창출’ 정책 구체화 필요
 - 대중정치 차원에서는 ‘비사회주의’ 투쟁·당의 경제행정 대행·지역갈등 심화가 맞물려 사회균열이 심화될 전망
 - 따라서 계층균열, 세대균열, 지역균열의 복합성 및 복잡성에 주목하여, 대북 정보력을 증대시키며 북한주민 변화를 위한 시장화 및 정보화 정책 고도화 필요

부록 2018년 북한 신년사 원문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용한 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속에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겹쌓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의한 인민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레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최악의 난관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결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한것입니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차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책상우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쥐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증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장거입니다.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세계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온 한해 헌신분투한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선철생

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고 5개년전략의 화학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당이 제시한 새형의 트랙토르와 화물자동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렬을 늘이고 례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려명거리와 대규모의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 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형단위들이 련이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었습니다.

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일신되었으며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혁명적랑만과 전투적기백으로 들끓게 하는 예술공연활동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의 사변적인 나날들에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 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핵무력건설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

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가적인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며 전력량비현상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전력, 철정광, 무연탄, 갈탄, 화차와 기관차, 자금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 다음해 철강재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이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희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금성프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은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운수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

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하천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지 은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짖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돛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전환경에 접근시켜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

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켓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당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빼는데 모를 박고 혁명적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모

두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류레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항쟁에 의하여 파썸통

치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던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나 북남관계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 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수 없을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도,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갈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바라는 초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중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

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립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한피줄을 나눈 겨례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다시한번 따뜻한 새 해인사를 보내면서 의미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들!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제국주의침략세력과는 오직 정의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체 인민이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입니다.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끝)



KINU Insight